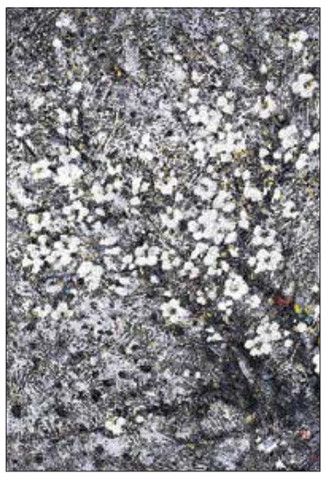
‘눈 속에서 매화꽃을 찾다’

한국화가 위진수씨 한국화전

8~14일, 광주 신세계갤러리



위진수 작 ‘눈 속에서 매화꽃을 찾다’

“한 그루 매화를 키움으로써 다만 풍우를 막아 주던 단칸방이 격조 높은 사랑방 행세를 하려 들듯”

소설가 박완서는 그의 작품 ‘미망’에서 매화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극찬했다. 옛 선비들은 매화 중에서도 한겨울 눈바람을 뚫고 피어난 설중매(雪中梅)를 꽃 중의 꽃으로 꼽았다.

한국화가 위진수씨가 오는 8~1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눈 속에서 매화꽃을 찾다’전을 연다. 위씨는 의연하게 추위를 견디고 꽃을 피운 매화를 꾸준히 그리고 있다.

이번에 선보일 30여 점의 작품에도 굵은 매화 가지를 중심으로 눈과 매화가 함께 휘날리는 모습을 담았다. 어느 게 꽃이고, 어느 게 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빛깔로 서로 엉켜 있지만, 눈보라 치는 날 먼발치에서 매화를 바라보는 흐릿하고도 그윽한 겨울날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겼다.

호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위 씨는 2005년 전라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6회의 개인전, 대한민국청년미술제, 광주청년작가회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모습.

진시영 ‘2007 아트 투어 르뽀전’

11일까지 광주 롯데화랑

2007 스위스 바젤아트페어·이탈리아 베니스비엔날레·독일 뮌스터 조각프로젝트·독일 카셀도큐멘타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상 전시회가 열린다.

비디오 설치작가 진시영씨는 오는 11일까지 광주 롯데화랑에서 ‘진시영 2007 Grand Art Tour(B.V.M.K) 다큐르뽀’전을 갖는다.

진씨는 지난해 이들 4대 미술축제를 직접 관람하고 촬영했던 사진·동영상 자료들을 르포 형식의 영상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들 축제의 개막과 폐막까지 담겨 있는 영상작품을 비롯해 참여 작가들의 모습과 작업 과정 등도 볼 수 있다.

진시영씨는 조선대 미대(서양화 전공)와 동 대학원 출신으로 2005 하정웅 청년작가상 수상,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 ‘메이드 인 광주’, 뉴욕대 & 파슨 & 프렛쇼 기획전 등에 참가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08 함께라서 좋아요 〈4〉 연극인 부부 오성환씨네

15년 한무대…소극장 살리기 한마음

오성환(오른쪽)·이당금씨 부부는 올해 광주에 소극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엄마 뱃속에서 부터 무대에 섰던 외동딸 새희(보성 노동초 5년·가운데)양은 부모님과 함께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등의 작품에 출연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남편은 극작가·연출가로, 부인은 간판 배우로

올 상반기 광주에 극단 전용 소극장 오픈 계획

연극인 오성환(45·푸른연극마을 대표) 이당금(39) 씨 부부는 요즘 ‘좋은 자리’를 보러 다니느라 바쁘다. 상반기 안으로 광주에 150석 정도의 아담한 소극장을 오픈하기 위해서다.

소극장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는 오씨 부부는 소극장 운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소극장이라는 공간이 극단과 연극 발전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걸 알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한번 도전을 시작했다.

오씨 부부에게 2005년은 또 다른 꿈을 꾼 해였다. 광주 생활을 접고, 1년 동안 전남북 지역 50여곳을 답사한 후 아무 연고도 없던 보성으로 들어가 연극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폐교를 임대해 맨바닥에서 시작한 보성 생활은 힘들었지만 매년 여름철에는 연극축제를 열고, 문화학교를 개최하는 등 조금씩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했고, 올해는 광주 활동과의 연계를 위해 소극장을 오픈하기로 했다.

“자기 극단만의 색깔을 갖고 독자성을 확보하려면 자기 극장이 필요해요. 한달 이상씩 장기 공연도 가능해 극단만의 고유 레퍼토리를 만드는 것도 유리하죠. 또 무엇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실험적인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등 다양한 도전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광주 극장을 포기하고 내려갈 즈음 극단 ‘얼·아리’ 극장도 폐쇄되고 광주 소극장은 침체기에 빠졌어요. 이번에 문을 열 소극장이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내는 생산기지로 작용할 수 있으면 해요.”(오성환)

대학 시절부터 연극을 했던 오씨와 달리 이 씨는 회사원 생활을 하다 연극의 매력에 빠져 배우의 길로 들어섰다. 1992년 김지숙의 모노 드라마 ‘로젤’을 본 이씨는 어떤 전율 같은 걸 느꼈고, 무작정 극단 ‘청춘’을 찾았다.

그 곳에서 잠시 연출을 맡고 있던 오씨를 만난 이씨는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일의 성향도 맞았던” 오 씨가 자신의 극단으로 돌아갈 때 한배를 탔고,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후 오 씨는 연출가로, 극작가로, 배우로 활동중이고, 이씨는 푸른연극마을의 간판 배우이자 극단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처음에는 남편을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둘이 작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돼 서로의 입장과 가치관 등을 이해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 다 현장에서 궂은 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남편이 조금 물러서길 바라기도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나 저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가장 의미있는 것 같아요.”

광주의 소극장 준비와 함께 보성 공연예술촌 변화를 모색중이다. 우선 여름에만 진행됐던 연극 축제를 사계절로 다변화시키고, 보성 인근의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공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원들은 올해 얼쑤에서 타악을 배우고 강령탈춤 강습도 받는 등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연극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서면 고정 관객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 힘든 과정을 겪을 각오가 없다면 연극을 할 의미가 없죠. 긴 호흡으로 꾸준히 뛸 생각입니다.”(오성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단원들이 마련해준 무대에서 은퇴하는 것, 신체를 활용한 퍼포먼스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것은 오씨와 이씨가 각각 꾸는 또 하나의 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독서 삼매경에 빠져 보세요”

겨울방학 ‘어린이들이 읽을만한 책’ 선정

겨울방학을 즐기고 있을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삼매경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이숙현)과 한국동시문학회(회장 박두순)가 어린이들이 겨울방학에 읽을 만한 책으로 ‘사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과 ‘올해의 좋은 동시집’을 선정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추천한 권장 도서로는 동화작가 이금이씨가 자녀와 함께 애완동물을 길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느낌을 정리한 어린이 창작동화 ‘미토는 똥도 예뻐’(이금이·푸른책들)을 비롯해 어린이들을 위한 서양철학사 시리즈 노마의 발견 완결편인 ‘힘내라 니체’(해냄출판사·해냄주니어)가 포함됐다.

이밖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내 친구 똥 퍼(이은홍·사계절) ▲멍멍 연맹의 비밀일기 : 견공들의 시대 이야기(베치 바이어스 외·아롬주니어) ▲싸움을 말리다 금화를 만든 왕 : 편하고 쓸모있게, 돈과 경제의 역사(디미테르 잉키오브·랜덤하우스코리아) 등 모두 30권을 추천했다.

한국동시문학회가 선정한 올해의 좋은 동시집으로는 ▲엄마는 내 맘도 모르면서(박예자·청개구리) ▲회초리도 아프대(송재진·청개구리) ▲참 엄마도 참(유희윤·문학과 지성사) ▲지금은 공사중(박선미·문학과 문학) ▲개미의 휴가(정갑숙·청개구리) ▲짝꿍이 다 봤대요(유미희·사계절) 등 6권이 선정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僞作과 미술시장

영국 출신 존 바담 감독의 영화 ‘익명(Incognito·1997년 작)’은 위작(僞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린 수작이다. 주인공 헨리 도노번은 가짜그림을 그리는 모조 화가. 어느 날 미술품 브로커 일당은 헨리에게 거장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려주는 대가로 50만 달러를 제시한다. 예술과 돈 사이에서 고민하던 헨리는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거래를 받아들인다. 단, 경매 등의 공개적인 판매는 허용할 수 없다는 조건과 함께.

헨리는 심혈을 기울여 렘브란트보다 더 렘브란트다운 ‘마스터피스’(?)를 완성한다. 그의 위작에 대다수 전문가는 돋보기를 들이대며 “과연 명작!”이라고 찬사를 늘어놓는다. 브로커들이 이 그림을 경매에 출품하기로 하자 헨리는 자신의 그림을 갖고 떠난다. 하지만 브로커들의 음모에 휘말려 살인과 그림 절도죄 누명으로 법정에 서게 된 헨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시 위작을 하게 된다.

‘익명’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도 있다. 네덜란드의 천재 위조화가 반 메헤렌(1889~1947)의 위작사건이다. 고전화가들의 그림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그이지만 유독 베르메르(1632~1675) 전문가 브레디위스 박사는 그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메헤렌은 그를 골탕먹이기 위해 4년 동안 폐놀과 포름알데히드를 이용, 약 300년 전의 베르메르 작품처럼 그려냈다. 이 그림을 브레디위스 박사에게 보내 진품감정서를 받아낸 후 네덜란드 예술협회에게 거액에 팔았다.

본래의 의도와 달리 큰 돈을 거머쥔 메헤렌은 베르메르의 위작 몇 점을 더 그려 유통시켰다. 그 중 ‘간음한 여인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나치 지도자 헤르만 괴링의 손에 들어갔다. 이후 이 그림이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자 메헤렌은 나치에게 국보급 미술품을 팔아넘긴 죄로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그는 국보를 팔아먹은 매국노보다는 그림을 위작한 사기꾼의 형량이 더 낮을 것으로 판단, 법정에서 ‘신전에서 설교하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그려 자신의 위작 실력을 입증했다.

새해 벽두부터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45억 2000만 원)를 기록했던 국민화가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가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 미술계의 위작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천경자, 박수근, 이중섭, 허백련, 오승윤 등 한국화단의 내로라 하는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위작 시비에 휘말린다고 할 정도로 그 뿌리가 깊다.

문제는 이들 위작 시비 가운데 명쾌하게 밝혀진 사례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라고 할 만큼 미술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감정시스템이 취약해 ‘가짜그림’이 활개를 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추된 미술계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첨단 과학을 동원해 반드시 위작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다. 그것은 또 치열한 예술혼으로 불후의 명작을 남긴 대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악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최고급관
2관	P.S아이러브유 (15세)
3관	헨젤과 그레텔 (12세)
4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
5관	가면 (18세)
6관	황금 나침반 (전체)/꿀벌대소동 (전체)
7관	색즉시공2 (18세)/더 시크릿 (15세)
8관	내셔널트레져-비밀의책 (12세)
9관	내 사랑 (12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마고리엄의장난감백화점 (전체)/황금나침반 (전체)
2관	내사랑 (12세)/용의주도미스신 (15세)
3관	아이러브유 (15세)
4관	나는전설이다 (12세)/내셔널트래져 (12세)
5관	기다리다미쳐 (15세)
6관	색즉시공2 (18세)
7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옥내·옥외 주차장 300대 *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한도시람 영화사람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미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마고리엄의장난감백화점(전체)/용의주도미스신(15세)
2관	색즉시공2(18세)/헨젤과그레텔(12세)
3관	앨빈과슈퍼밴드(전체)/황금나침반(전체)
4관	황금 나침반(전체)
5관	P.S 아이러브유(15세)
6관	꿀벌대소동(전체)/가면(18세)
7관	내셔널트레져(12세)
8관	내사랑(12세)/아메리칸 갱스터(18세)
9관	나는 전설이다(12세)
10관	기다리다 미쳐(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메일심야 상영합니다
콜롬버스 하남점(107면) 절찬리 상영중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내사랑(12세)/어거스트러쉬 (전체)
2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3관	내셔널 트래져(12세)
4관	꿀벌대소동(전체)/아메리칸갱스터(18세)
5관	P.S 아이러브유 (15세)
6관	나는 전설이다(12세)/색즉시공2 (18세)
7관	헨젤과그레텔(12세)/황금 나침반(전체)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세벽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용의주도 미스신 (15세)
2관	P.S아이러브유 (18세)
3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4관	꿀벌대소동(18세)/색즉시공2 (18세)
5관	앨빈과슈퍼밴드(전체)/내셔널트레져 (12세)
6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7관	헨젤과그레텔 (12세)/가면 (18세)
8관	아메리칸갱스터 (18세)/어거스트러쉬 (전체)
9관	황금나침반 (전체)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멀티플렉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기다리다 미쳐 (15세)
2관	가면 (18세)/내사랑 (12세)
3관	황금나침반 (12세)
4관	색즉시공2 (18세)
5관	아이러브유 (12세)/내셔널트레져 (12세)
6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